



## 유아의 부모와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서로 어떻게 인식할까?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 인식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

**이혜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이재은**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정선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How Do Parents and Teachers of Toddlers Perceive One Another's Media Literacy?

Applying the Co-Orientation Model for Investigating Perceptions about Media Literacy Components and about Participation of Media Literacy Experts\*

**Hye-Sun Lee**\*\*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Jaehee Cho**\*\*\*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Jae-E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 care, Kyung-In Women's University)

**Sun Im Cheong**

(Ph. D.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In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parents' and teachers' media literacy transfers to direct interactions with toddler and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ifferences in parent and teacher groups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f media literac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parents and teachers in terms of their perceptions of media literacy. The focus was directed at building co-orientation models

---

\*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지정주제 연구과제 '유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및 커리큘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발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This research used data collected through 'Early Childhood Media Literacy Education Plan and Curriculum,' a research project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anks to the reviewers for their advice in making this article more advanced).

\*\* [hsle@sogang.ac.kr](mailto:hsle@sogang.ac.kr)

\*\*\* [jcho76@sogang.ac.kr](mailto:jcho76@sogang.ac.kr), corresponding author

regarding the sub-components of media literacy and media literacy experts'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Further, we analyzed the types of each co-orientation model, and we discussed the need fo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n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 self-repor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203 parents of toddlers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eachers employed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orientation model for critical understanding and citizenship, a sub-component of media literacy, corresponded to ignorance. The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on critical understanding and citizenship was consistent. However, the congruency between the two groups did not agree. They responded that the others would not perceive their critical understanding positively as they did. On the other hand, regarding citizenship, they answered that the other person would perceive them more positively than themselve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erceptual bias in which the other party misunderstands that the parents and teachers have similar perceptions about critical understanding and citizenship but are different from their own. Concerning self-expression, both parents and teachers answered that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ould perceive them more positively, and both groups recognized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relatively accurately. The analysis of the co-orientation model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media literacy experts in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was partially inconsistent. In other words, teachers perceived more positively than parents about participation in media education for children in media literacy-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media education instructors and universities. Teachers recognized these differences relatively accurately, but parents tended to respond that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participation of media literacy experts would be similar to themselves. The paper concludes by mentioning some of the implications raised by this approach to the necessity of a media education program in which teachers and parents participate together or the need for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media literacy experts.

**Keywords:**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 Co-orientation model, Parents, Teacher

# 1. 서론

미디어교육에 관한 초창기 문헌(UNESCO, 1977)에서, 미디어교육은 “교육적 이론과 실천 범위 내에서 특정하고 자율적인 지식의 영역으로서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현대 미디어에 관한 연구·학습 교육”(p. 3)으로 정의된다. 특히 언론계와 교육계는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자 학습자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영향력과 일관성 있고 구조화된 체계 안에서 지식·지성·감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한다(UNESCO, 1984).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미디어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에 초점을 맞추며, 교육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미디어 유형, 미디어 언어, 미디어 청중, 미디어 표현 등 미디어의 개념적 이해 측면에서 설계된다(Buckingham, 1998). 따라서 유아 미디어교육 역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유아를 향한 미디어의 영향력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유아 미디어교육 관련 국내 연구들은 최근 스마트 미디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수원, 2020; 이예숙·박찬옥, 2015; 이지운·강은진, 2020). 윤미경과 서현선(2021)은 만 5세 유아 대상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유아들은 스마트 미디어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에 따라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력 저하를 우려하거나 유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의 노출 및 이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아는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이나 제도는 접근·활용의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장민영, 2020). 유아 미디어교육은 유아를 능동적인 참여 주체로 바라보고 그에 어울리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강은진, 2021). 특히 유아는 스마트 미디어를 친구나 가족을 향한 소통의 도구로도 인식하므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기보다 미디어를 통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윤미경·서현선, 2021).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에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주목한다. 특히 부모·교사 각각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그치지 않고 부모·교사 간의 상호인식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생태 시스템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유아의 발달은 부모·교사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부모·교사 간의 상호작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또한, 미디어처럼 일상생활에 폭넓게 적용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부모 혹은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 유아가 혼란을 경험하지 않도록 가정·기관 간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최영해·정희정, 2014). 하지만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는 교육과정 이해나 의사소통에 과정에 관한 오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김초롱·권미량, 2021), 유아교육은 부모와 교사를 분리하기보다 상호 이해와 관계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권미량·하연희,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주요 참여자인 부모와 교사에게 주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상호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상호지향성 모델(Chaffee & McLeod, 1968; McLeod & Chaffee, 1978)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객관적 일치도(agreement)뿐 아니라, 상대의 인식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을 평가하는 주관적 일치도(congruency), 주관적 일치도가 실제 상대의 인식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는 정확도(accuracy)를 분석한다. 특히 정확도는 상대의 인식에 관한 이해 수준을 반영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Chaffee & McLeod, 1968; Park, 2003). 또한, 상호지향성 모델 분석 결과를 활용한 유형 분석(Kim, 1986; 김영욱·윤하나, 2004에서 재인용)은 상호인식 차이의 비교 혹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인식 간의 관계성을 폭넓게 조망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관계(권미량·하연희, 2014; 김초롱·권미량, 2021),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서은정·마정미, 2021) 등을 고려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유아의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주목하여, 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유아 미디어교육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유아 미디어교육과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생성하는 능력”(Livingstone, 2004, p. 3), “텍스트·도구 및 기술의 사용,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기술, 메시지 구성 및 창의성 연습, 성찰과 윤리적 사고에 참여하는 능력, 팀워크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인지적·감정적·사회적 역량”(Hobbs, 2010, p. 17), “특정 결과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생성하는 시민의 능력”(Aufderheide & Firestone, 1993, p. 6) 등으로

정의된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는 이용자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닌 부모는 유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김지선·이강이, 2019). 또한, 교사는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님으로써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미디어 노출 및 이용 경험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Rosen & Jaruszewicz, 2009).

부모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 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은 미시체계(microsystem)를 포함하는 4개의 환경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시체계는 유아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유아와 부모 혹은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형성하는 대인관계,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분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조미현·김현수, 2015). 특히 부모와 교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타인이며, 부모·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멀더와 동료들(DeMulder et al., 2000)에 따르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유아의 대인관계 영역이 교사나 또래 친구로 확장될 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가치를 전달하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인적 자원·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한 지도나 감독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 측면으로도 논의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특히 유아는 스마트 미디어를 친구나 가족을 향한 소통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윤미경·서현선, 2021),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즉 유아가 성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다. 근접 발달 영역은 “독립적인 문제 해결로 인해서 결정된 실제 발달 수준, 그리고 성인의 지도를 받거나 더 유능한 또래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된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Vygotsky, 1978, p. 86)를 의미한다.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유아의 독립적인 학습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영역과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부모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 조건이나 환경을 설정하는 등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촉진자이자 교수자이며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Nikken & Schols, 2015). 교사의 경

우, 유아 스스로 미디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더라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받아쓰고 그림 파일을 선택하여 발송하는 등 공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Rosen & Jaruszewicz, 2009).

유아 미디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부모·교사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꾸준히 논의해왔다. 예를 들면, 부모와 관련해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정에서의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할 수 있고(서은정·마정미, 2021), 어머니의 비판적 리터러시는 스마트 미디어 중재를 통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보람·이영신, 2020). 교사의 경우, 유아 교사의 리터러시 영역을 컴퓨터·정보·지식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보와 지식에 관한 내용은 스마트 미디어를 적용한 유아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컴퓨터와 지식에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교육 교수효능감의 선행변인이었다(김보현·이홍재·박미경, 2019). 이러한 논의는 부모·교사 미디어 리터러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취할 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경로로 비교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유아 미디어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 주체가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어 교육 효과나 교육의 일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주체 간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 먼저 교육 효과 측면으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한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뿐 아니라 유아가 성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Nikken & Schols, 2015; Rosen & Jaruszewicz, 2009). 따라서 유아 미디어교육은 부모·교사 미디어 리터러시의 긍정적 영향력을 논의함과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 현황을 조망하여 교육 효과 제고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모·조부모 간 교육관의 지나친 괴리가 양육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체 간 인식 차이는 집단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유미·이정은, 2013). 부모와 교사는 유아 미디어교육에 깊게 관여하는 두 주체이므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일관성 저하와 교육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 간의 인식 차이는 유아가 성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뿐 아니라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일관성이나 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 2)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상호인식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와 교사의 인식뿐만 아니라 부모·교사 간의 상호인식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태 시스템 이론에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두 번째 요소는 중간체계(mesosystem)로,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부모-교사 협력 관계나 가정-기관 연계를 포함한다(Bronfenbrenner, 1979). 특히 부모-교사 협력 관계 기반의 가정과 기관 간 연계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일상생활 속 교육이 필요한 영역에서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최영해·정희정, 2014).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아의 발달 및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원활하게 소통한다면, 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아 미디어교육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부모-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 부모 혹은 양육자의 미디어 리터러시(윤보람·이영신, 2020; 이채진·이영신, 2021)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김보현·이홍재·박미경, 2019; 장희선·안영진, 2019)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부모-교사 간의 갈등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권미량과 하연희(2014)는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서로에게 다른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는 교사와의 관계를 ‘예쁘고 씩씩한 이미지’, ‘전문성과 인성’, ‘관심과 소통’, ‘불안’, ‘교사의 훈육 방법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걱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시어머니 같은 부담’, ‘신뢰를 보일 때 행복을 느낌’, ‘예의 없는 태도나 행동으로 인한 종속 관계 인식’, ‘함께 돌봄이 필요함’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김초롱과 권미량(2021)은 부모상담일지, 전화상담일지, 관찰일지와 같은 문서 자료와 설문 응답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부모-교사 간 갈등유형을 분석하였는데, 부모와 교사 모두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과 교육과정에 관한 상호인식의 차이를 주요 갈등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는 교사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교사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오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과정에 관한 상호인식의 차이에서도 반복되는데, 부모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교사와 충돌할 때 갈등을 경험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교육 방식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한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권미량과 하연희(2014)는 유아교육의 두 주체인 부모-교사 간의 갈등을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교사는 부모를 지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주요 주체이고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려면 부모의 참여와 교육적 유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교사 간의 갈등은 부모 혹은 교사 중심으로 분리해서 논의하기보다 상호 이해와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권미량 하연희, 2014). 이러한 논의는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 두 집단의 관계성 중심으로 상호인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인식하는 과정에 관하여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상호인식을 분석하고자 두 편의 연구에 각각 주목하였다. 먼저, 안정임과 동료들(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2)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판적 이해·공공성·참여성·규범 준수·기술적 활용·자아 표현·관용성이라는 7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비판적 이해는 편집기법에 따라 같은 내용이 다르게 수용될 수 있거나 미디어 종류에 의해 같은 메시지도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범 준수는 온라인에서의 욕설·비속어 사용이나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과 같은 사회적 규범과 관련되어 있으며, 참여성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등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다. 자아 표현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적 활용은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전자상거래 이용과 같은 미디어 활용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관용성에 포함되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고 유해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공공성으로 구분되었다. 선행연구는 특정 집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구성요소를 사용하였으나(이수범·손영곤, 2018), 유아 미디어교육 주요 주체인 부모·교사에게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의 상호인식에 주목하였다. 서은정과 마정미(2021)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를 포함하여 조부모, 관련 분야 교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유아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주체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 가운데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유아 미디어교육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교사 모두 유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참여자는 교육 장소의 접근성이 중요하며 부모와 유아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의무화를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계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행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의 차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데,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서은정과 마정미(2021)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을 뿐 아직 양적 자료는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문성을 지닌 주체로 분류하였던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이수범·손영곤, 2018), 미디어교육 커리큘럼과 자원 개발의 전문성을 지닌 대학(Hobbs, 2010)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간의 상호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부모·교사 상호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인식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대상을 향한 두 사람의 태도 차이에 주목한 뉴컴의 A-B-X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별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Chaffee & McLeod, 1968; McLeod & Chaffee, 1978). 상호지향성 모델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여 각각의 차이를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정확도로 구분한다(Chaffee & McLeod, 1968)<sup>1)</sup>. 객관적 일치도는 실제 인식 간의 차이이며, 주관적 일치도는 다른 사람의 인식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지향성 모델의 정확도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Chaffee & McLeod, 1968; Kim, 1986; Park, 2003에서 재인용). 박종민(Park, 2003)이 언급하였듯,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통의 의미를 공유하려면 자신과 상대의 인식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인간은 이러한 합의 과정에 상대의 의견을 추측하여 반영한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상대의 의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Chaffee & McLeod, 1968; Park, 2003). 즉, 상호지향성 모델은 두 사람의 실제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객관적 일치도, 상대의 인식을 추측하여 자신과의 유사성을 예상하는 주관적 일치도, 자신의 추측이 실제 상대의 인식과 유사한지 확인하는 정확도를 분석하여, 상호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

1) 선행연구(Chaffee & McLeod, 1968)에 의하면, 객관적 일치도(agreement)는 상호인식의 일치 여부로 두 사람의 인식 수준이 실제로 유사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일치도(congruency)는 상대의 인식을 추측하여 자신의 인식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주관적 일치도가 높다면 상대의 인식이 자신의 인식과 비슷할 것이라 예상한다. 반대로, 주관적 일치도가 낮으면 상대가 나와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는데, 주관적 일치도는 자신이 추측한 상대의 인식을 답변하므로 실제 일치 여부와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정확도(accuracy)는 상대 인식에 관한 자신의 추측을 실제 상대의 인식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정확도가 높다면 상대의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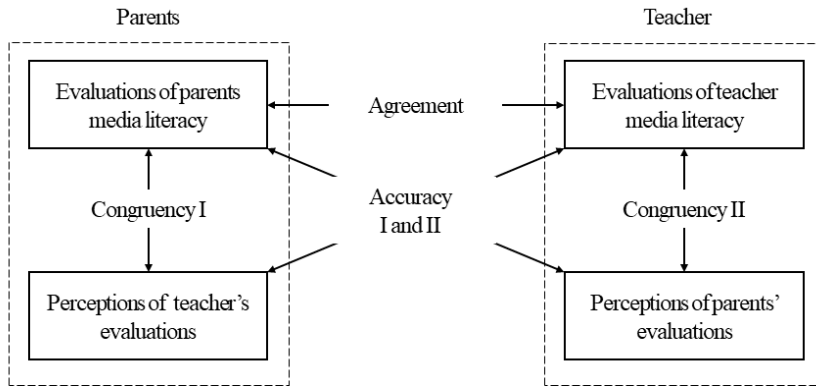


Figure 1. Co-orientation model in parents and teacher media literacy

상호지향성 모델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두 사람 간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Wackman, 1973),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는 가정하에 집단 간 인식 차이와 관계성 파악에 적용할 수도 있다(Brønn & Brønn, 2003). 예를 들면, 유튜브 이용 동기에 관한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인식 분석 결과, 관계 추구를 제외한 모든 요소의 객관적 일치도와 긴장해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의 주관적 일치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이상숙·전범수, 2020).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상숙과 전범수(2020)는 유튜브 이용 목적에 관하여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실제 차이가 존재하며 서로의 이용 목적을 오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대 갈등 발생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저널리즘 기사의 신뢰성 평가에서, 후원자는 제안자 집단이 인식하는 신뢰성 수준이 자신들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집단 간의 실제 인식은 유사한 수준이었다(유수정·김관수, 2020). 유수정과 김관수(2020)의 설명처럼, 이러한 결과는 클라우드펀딩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제안자 집단이 기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는 후원자 집단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다. 김지윤과 김수연(2020)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부·공중 관계성 인식을 정부 관계자가 오해할 가능성, 특히 업무에 관련된 긍정적 편향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수범과 손영곤(2018)은 미디어 리터러시 기획자·경험자·비경험자 집단에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비경험자 집단은 미디어 이해·미디어 내용 비판·미디어 시민의식 함양 등에 관한 자신의 인식이 미디어 리터러시 기획자 집단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자 집단과 유사할 것이라 인식하였다. 관련하여, 이수범과 손영곤(2018)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 혹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비경험

자 집단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주제별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유아 미디어교육에 주목하여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인식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상호인식에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부모·교사 인식 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 간의 주관적 일치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 간의 정확도는 어떠한가?

#### 4) 부모·교사 상호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

상호지향성 모델은 상호인식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 분석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김학수(Kim, 1986; 김영옥·윤하나, 2004에서 재인용)는 상호지향성 모델의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정확도와 메타동의<sup>2)</sup> 분석 결과에 따른 6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관련된 정확도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정확도를 포함한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메타동의가 모두 일치하면 일치(consensus) 유형에 해당한다. 일치 유형은 상호인식이 비슷하며 이러한 사실을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반면, 정확도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dissensus) 유형에 해당하며, 상호 간의 인식이 실제로 차이를 보이지만 두 집단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를 일치하나 주관적 일치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두 집단 간의 인식이 유사함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ignorance)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확도·객관적 일치도·메타동의를 일치하지 않고 주관적 일치도만 확보하면 그릇된 합의(pseudo-consensus)에 해당한다. 그릇된 합의는 집단 간 인식이 차

---

2) 메타동의를 추정된 상대의 의견 인식에 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Kim, 1986; 김영옥·윤하나, 2004에서 재인용), 해당 내용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부모가 추측한 교사의 인식 수준과 교사가 추측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유사할 때 메타동의를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교사가 추측한 부모의 인식 수준과 부모가 추측한 교사의 인식 수준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메타동의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인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오해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어느 한 집단의 정확도만 일치하면 부분 일치(semi-consensus) 혹은 부분 불일치(semi-dissensus)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분 일치는 객관적 일치도가 일치하지만 메타동의를 일치하지 않으며, 한 집단의 주관적 일치도와 정확도가 일치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부분 일치 유형은 어느 한 집단이 두 집단의 인식이 실제 유사하다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객관적 일치도는 일치하지 않고 메타동의를 일치하지만 한 집단의 주관적 일치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확도가 일치하면 부분 불일치(semi-dissensus)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두 집단의 상호인식 차이를 한 집단이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을 분석하려면 각 경로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PR 실무자와 언론인 간의 사적 관계에 관한 중요성 인식(김영욱·윤하나, 2004), 사드 이슈에 관한 한국과 중국 공중의 인식(정원준, 2020), 로봇 저널리즘 관련 기자와 독자 간의 상호 인식(이정일·정원준, 2020)에 관한 연구들이 상호지향성 모델의 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박성희와 박수미(2005)는 포털뉴스 제공자와 이용자 집단에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포털뉴스의 쌍방향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이용자 부상에 관한 부분 일치 유형을 도출하였다. 즉, 포털뉴스 제공자와 이용자 집단은 포털뉴스에서의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고 반영하며, 이용자를 능동적 주체로 여기는 것에 관하여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포털뉴스 제공자 집단은 이러한 경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나, 이용자 집단은 제공자 집단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포털뉴스 제공자 집단을 향한 이용자 집단의 과대평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상대의 인식을 오해하는 무지 혹은 그릇된 합의는 다원적 무지를 반영할 수도 있다. 다원적 무지는 특정 집단의 일부 구성원이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거나(Park, 2003), 유사성을 비유사성으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과 내가 실제로는 유사하지만 다르다고 인식하는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Miller & McFarland, 1987). 관련하여, 박종민(2012)은 기자와 PR 실무자 간의 주관적 일치도를 중심으로 다원적 무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Kim, 1986; Park, 2003, p. 256에서 재인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히려 집단 간의 상호 이해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집단 간 상호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적용은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뿐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반영한 유형을 분석하여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을 다각도로 논의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

모·교사의 상호인식을 상호지향성 모델에 적용하고, 각 모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은 각각 어떠한가?

### 3.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유아교육 기관 교사와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인 연구자 중심의 편의 표집 방식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유아교육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에 총 203명(학부모: 103명, 교사: 100명)이 응답하였으며, 전체 표본의 연령 평균은 33.37( $SD = 7.95$ ), 교사 30.95( $N = 100, SD = 9.06$ ), 학부모 36.83( $N = 70, SD = 4.05$ )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Total (N = 203)		Parents (n = 103)		Teacher (n = 100)		
	n	%	n	%	n	%	
Sex	Male	20	9.9	17	16.5	3	3
	Female	183	90.1	86	83.5	97	9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6	3.0	6	5.8	-	-
	College graduation	59	29.1	10	9.7	49	49
	University graduation	88	43.3	55	53.4	33	33
	Graduateschool graduation (master)	39	19.2	28	27.2	11	11
	Graduateschool attendance (Ph. D course or candidate)	3	1.5	2	1.9	1	1
	Graduateschool graduation (Ph. D)	8	3.9	2	1.9	6	6
Type of education institutions	Kindergarden	83	40.9	48	46.6	35	35
	Day care center	113	55.7	49	47.6	64	64
	Other	7	3.4	6	5.8	1	1

Factor		Total (N = 203)		Parents (n = 103)		Teacher (n = 100)	
		n	%	n	%	n	%
Period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Less than 5 years					54	54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20	20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14 years					16	16
	More than 15 years					10	10
Media used for early childhood media education in households and institutions	Printed media (e.g. book, newspaper)	177	87.2	86	83.5	91	91
	Audio media (e.g. radio, AI speaker)	104	51.2	53	51.5	51	51
	TV (e.g. smart TV, IPTV)	146	71.9	92	89.3	54	54
	VIDEO/DVD player	43	21.2	11	10.7	23	23
	Computer	125	61.6	43	41.7	73	73
	Printer	75	36.9	20	19.4	44	44
	Internet	118	58.1	36	35.0	67	67
	Tablet PC	94	46.3	60	58.3	20	20
	Smartphone	119	58.6	67	65.0	38	38
Game console	16	7.9	14	13.6	1	1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안정임 외(2012)의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정임 외(2012)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행연구를 종합한 뒤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이수범·손영근, 2018). 해당 척도는 기술적 활용, 비판적 이해, 자아 표현, 규범 준수, 참여성, 관용성, 공공성과 같은 7개 요인으로 구성된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 가운데 약 79%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은 20대와 30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이므로, 기술적 활용(예: 나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할 수 있다)에 측정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규범 준수(예: 나는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연구대상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강하게 작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 차이에 주목한다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져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는 비판적 이해(7문항), 자기표현

(4문항), 관용성(3문항), 참여성(6문항), 공공성(3문항)을 포함하는 23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예: 미디어 교육 강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와 '대학은 유아 미디어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을 각 1개씩 배치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을 변경하여 다르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제시된 문항은 '(나는) 미디어의 내용도 사람마다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는) 미디어의 내용도 사람마다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등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나는) 소유주에 따라 미디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유아의 학부모는) 소유주에 따라 미디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로 구분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sup>3)</sup>(KMO = 전체 표본 .86, 교사 .83, 학부모 .81)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비판적 이해 측정 문항 가운데 '나는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과 관용성을 측정했던 모든 문항(예: '나는 미디어에 의견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다' 등)은 내적 일관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판적 이해 관련 4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전체 표본 .89, 교사 .91, 학부모 .87로 분석에 적합한 문항임을 확인하였으며, '나는 같은 메시지도 미디어별로 다르게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같은 내용도 편집기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등이 사용되었다. 자기표현 관련 4개 문항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하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표본 .84, 교사 .83, 학부모 .84였다.

참여성(6문항)과 공공성(3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는데, 안정임(2013)은 참여성, 공공성, 관용성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민성 영역으로 통합하였으

---

3)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안정임 외, 2012)를 통해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아의 부모·교사에게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달리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측정 문항을 사전에 확정하므로(최창호·유연우, 2017), 설문조사에 사용한 문항들이 다른 요인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고려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를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최창호·유연우, 2017). 본 연구의 표본은 203명이며 교사와 부모 집단을 구분하면 약 100명 내외이므로, 측정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SPSS를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역-이미지 행렬모형의 표본화 적합성 측도는 문항별 최소 .66에서 최대 .92였다. 공공성은 전체 표본 .47~.81(부모 .49~.90, 교사 .50~.88)이었으며, 스크리도표의 고유값은 요인별로 1.0 이상이었다.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표본 .92, 교사 .92, 학부모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이나 정보를 공유한다'를 포함한 참여성 측정 문항, '나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를 포함하는 공공성 측정 문항은 연구문제 분석 과정에 시민성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인식과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인식을 측정했던 문항 역시 전체 표본 대상 요인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학부모 대상 요인분석 결과에서 각각 다른 요인으로 구별되었고, 신뢰도 분석 결과 두 문항을 통합할 만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문제 분석 과정에서 각 문항을 분리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는 SPSS 27.0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요인별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 대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를 비판적 이해( $M = 4.22$ ,  $SD = 0.57$ ), 자기표현( $M = 3.75$ ,  $SD = 0.76$ ), 참여성과 공공성을 포함하는 시민성( $M = 3.06$ ,  $SD = 0.88$ ) 순서로 높게 인식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는 대학( $M = 3.90$ ,  $SD = 0.75$ )보다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의 참여( $M = 4.31$ ,  $SD = 0.71$ )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와 교사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였으며, 각 요인의 첨도는  $-0.50$ 에서  $1.45$ , 왜도는  $-0.86$ 에서  $-0.27$ 였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 each factor of total group, parents, teacher

Factor		Total (N = 203)		Parents (n = 103)		Teacher (n = 100)	
		M	SD	M	SD	M	SD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2	0.57	4.23	0.54	4.21	0.61
	Self expression	3.75	0.76	3.63	0.77	3.88	0.74
	Citizenship	3.06	0.88	3.13	0.83	2.98	0.93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31	0.71	4.19	0.78	4.43	0.61
	University	3.90	0.75	3.75	0.72	4.06	0.74



## 2)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분석 결과

### (1) 부모·교사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1, 연구문제 2-2는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는 것으로, 먼저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각각 적용하였다. 레빈(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부모·교사 인식에 관한 집단 간 분산은 통계적으로 동일하였다. 이후 전체 표본을 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으로 분류한 독립표본 t-검정으로 객관적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주관적 일치도는 집단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자신의 인식과 상대의 의견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한 객관적 일치도(Table 3) 분석 결과, 유아의 부모와 교사는 자신의 미디어 리터러시 가운데 비판적 이해에 관하여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성(참여성과 공공성)은 부모보다 교사가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자기표현은 부모의 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가 참여는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참여 모두 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esults of agreement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Factor	Parents		Teacher		t	
	M	SD	M	SD		
Agreement -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3	0.54	4.21	0.61	-0.32
	Self expression	3.63	0.77	3.88	0.74	2.32*
	Citizenship	3.13	0.83	2.98	0.93	-1.22
Agreement -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19	0.78	4.43	0.61	2.40*
	University	3.75	0.72	4.06	0.74	3.05**

\*  $p < .05$ , \*\*  $p < .01$

주관적 일치도(Table 4) 분석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비판적 이해에 관한 자신의 역량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부모  $M_{\text{self}} = 4.23$ ,  $M_{\text{other}} = 3.94$ , 교사  $M_{\text{self}} = 4.21$ ,  $M_{\text{other}} = 3.93$ ). 반면, 부모와 교사는 시민성(참여성과 공공성)에 관하여 서로의 역량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부모  $M_{\text{self}} = 3.13$ ,  $M_{\text{other}} = 3.50$ , 교사  $M_{\text{self}} = 2.98$ ,  $M_{\text{other}} = 3.66$ ). 자기

표현은 부모와 교사 모두 교사의 역량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각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부모  $M_{self} = 3.63$ ,  $M_{other} = 3.89$ , 교사  $M_{self} = 3.88$ ,  $M_{other} = 3.62$ ).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의 경우, 부모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 $M_{self} = 4.19$ ,  $M_{other} = 4.16$ )와 대학( $M_{self} = 3.75$ ,  $M_{other} = 3.69$ )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식이 자신들과 유사할 것이라 인식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 $M_{self} = 4.43$ ,  $M_{other} = 4.17$ )와 대학( $M_{self} = 4.06$ ,  $M_{other} = 3.88$ )의 참여 모두 자신들이 더 높게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The results of congruency (paired t-test)

Factor	Self		Other		t		
	M	SD	M	SD			
Congruency I (Parents' perception)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3	0.54	3.94	0.56	5.45***
		Self expression	3.63	0.77	3.89	0.52	-3.46**
		Citizenship	3.13	0.83	3.50	0.59	-5.25***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19	0.78	4.16	0.75	0.59
		University	3.75	0.72	3.69	0.89	0.75
Congruency II (Teacher's perception)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1	0.61	3.93	0.58	4.89***
		Self expression	3.88	0.74	3.62	0.66	3.21**
		Citizenship	2.98	0.93	3.66	0.66	-7.70***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43	0.61	4.17	0.74	3.85***
		University	4.06	0.74	3.88	0.79	2.68**

\*\*  $p < .01$ , \*\*\*  $p < .001$

상호지향성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의 크기·평균값·표준편차를 활용한 T-검정(4)을 진행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정확도 분석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자기표현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비판적 이해에 관한 부모 스스로의 인식( $M = 4.23$ )은 교사가 추측하는 부모의 인식( $M = 3.93$ )보다 높았다. 반대로, 비판적 이해에 관한 교사의 인식( $M = 4.21$ ) 역시 부모가 추측하는 교사의 인식( $M = 3.94$ )보다 높았다. 반면, 시민성에 관하여 교사가 추측한 수준보다 실제 부모의 인식이 더 낮은

4) 다른 집단의 다른 변인(예: 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을 비교 분석해야 하므로 T-test calculator를 활용하였다(<https://www.graphpad.com/quickcalcs/ttest1/?format=SD>).

경향을 보였으며(부모  $M = 3.13$ , 교사의 예상  $M = 3.66$ ), 부모 역시 그들의 추측보다 실제 교사의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사  $M = 2.98$ , 부모의 예상  $M = 3.50$ ).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정확도는 교사 집단의 인식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하여 부모의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모가 추측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 $M = 4.16$ )와 대학( $M = 3.69$ )의 참여에 관한 인식은 교사가 실제로 답변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 $M = 4.43$ )와 대학( $M = 4.06$ )의 참여 인식보다 낮았다.

Table 5. The results of accuracy (calculated  $t$  value)

Factor			Perception		Expectation		t
			M	SD	M	SD	
Accuracy I (Parents' perception & Teacher's expectation)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3	0.54	3.93	0.58	3.83***
		Self expression	3.63	0.77	3.62	0.66	0.11
		Citizenship	3.13	0.83	3.66	0.66	-4.99***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19	0.78	4.17	0.74	0.23
		University	3.75	0.72	3.88	0.79	1.24
Accuracy II (Teacher's perception & Parents' expectation)	Media literacy	Critical thinking	4.21	0.61	3.94	0.56	3.30**
		Self expression	3.88	0.74	3.89	0.52	-0.20
		Citizenship	2.98	0.93	3.50	0.59	-4.75***
	Involvement with experts	Institution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4.43	0.61	4.16	0.75	2.86**
		University	4.06	0.74	3.69	0.89	3.24**

\*\*  $p < .01$ , \*\*\*  $p < .001$

## (2)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

연구문제 3은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에 관한 것으로, 상호지향 형태를 구분하려면 상대를 향한 인식 간의 일치도를 파악하는 메타동의를 활용해야 한다(Kim, 1986; 김영옥·윤하나, 2004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메타동의 일치 여부를 도출하고 이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정확도의 일치 여부를 적용하여 세부 요소별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을 구분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 분석 결과,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은 무지 유형에 해당하였으며 자기표현은 완전 불일치 유형으로 나타났다. 무지 유형은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를 일치하더라도 주관적 일치도와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한 부모·교사 스스로의 인식은 유사하지만 서로 간에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자기표현에 관한 완전 불일치는 정확도가 일치하나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메타동의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 교사는 자기표현에 관하여 서로를 다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불일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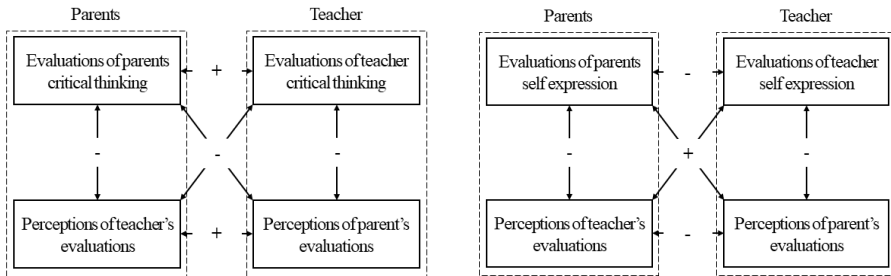


Figure 2. Co-orientation model about critical thinking (ignorance) and self expression (dissensus)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 모두 부분 불일치 유형으로 나타났다. 상호지향성 모델의 부분 불일치 유형은 객관적 일치도는 일치하지 않지만 메타동의를 일치하면서 어느 한 집단의 주관적 일치도와 정확도만 일치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즉,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하여 부모·교사 스스로의 인식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교사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 집단은 교사의 인식이 자신들과 유사하리라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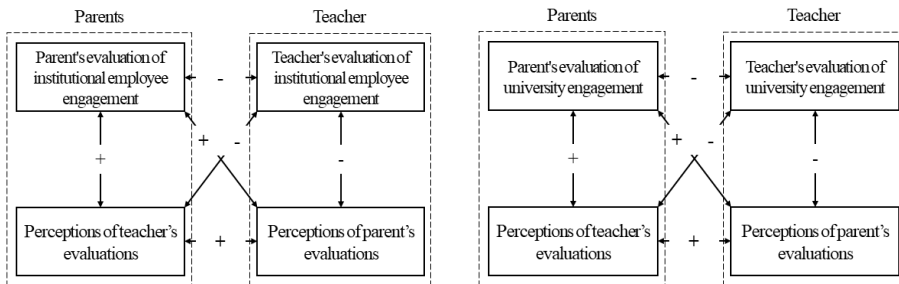


Figure 3. Co-orientation model about involvement with experts (all about semi-dissensus)

## 5. 결론

### 1) 주요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주요 참여자인 부모와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비판적 이해, 자기표현, 시민성: 참여성·공공성),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 인식에 주목하여 부모·교사 상호인식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를 도출한 뒤 상호지향성 모델의 객관적 일치도·주관적 일치도·정확도를 분석하였고,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을 분석하여 부모·교사 인식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유아교육 기관 교사 100명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0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사 간의 인식 차이인 객관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하여 일치 혹은 불일치가 혼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현과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해서는 유아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다. 즉,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던 여러 선행연구(김지윤·김수연, 2020; 김영옥·윤하나, 2004; 박성희·박수미, 2005; 이수범·손영근, 2018; 이정일·정원준, 2020)와 유사하게,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설명하였던 선행연구(권미량·하연희, 2014; 서은정·마정미, 2021)를 뒷받침한다.

둘째,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인식을 추측하여 유사성을 평가하는 주관적 일치도 분석 결과에서도 일치와 불일치가 복합적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 가운데 비판적 이해에 관하여, 부모와 교사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기표현에 관해서도 부모와 교사는 서로 간의 인식이 다를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부모는 교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였고 교사 역시 자신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반면, 시민성 영역에서는 부모와 교사 모두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문가 참여에 관하여, 부모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참여 모두 교사가 자신들과 유사하게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주관적 일치도가 실제 부모·교사의 인식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는 정확도 분석 결과, 부모와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 가운데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하여 서로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판적 이해는 부모와 교사 모두 상대의 실제 인식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측하는 과소평가가 발생하였고, 시민성은 상대의 실제 인식보다 높게 예상하는 과대평가가 발생하였다. 다만,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 가운데 자기평가에 관해서는 서로의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하여, 교사 집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참여에 관한 인식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실제 교사의 인식은 자신들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교사와 부모의 인식이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 상호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한 무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의 부모와 교사는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한 자신들의 인식이 실제로는 유사한 수준임에도, 서로의 인식은 자신들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다원적 무지가 발생하였다. 특히 비판적 이해는 객관적 일치도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식을 예상하는 수준인 메타 동의도 유사하였는데, 부모와 교사가 비판적 이해에 관한 서로의 인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성에 관해서는 서로의 인식과 서로의 인식을 예상하는 수준이 모두 유사하였으나,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인식을 과대평가하여 자신과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에 관한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지향성 모델은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부모와 교사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완전 불일치 유형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은 부분 불일치 유형에 해당하였다. 즉, 부모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참여 모두 교사가 자신들과 비슷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유아의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종사자와 대학의 참여 모두 자신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하여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부모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교사 집단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간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생태 시스템 이론(Bronfenbrenner, 1979)과 근접 발달 영역(Vygotsky, 1978)에 관한 논의에서 강조하듯, 유아의 부모와 교사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모와 교사 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에만 주목하면 자칫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단편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생태 시스템 이론의 중간체계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면(Bronfenbrenner, 1979),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간의 인식이 유사할 때 일관성 있는 유아 미디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경험한 미디어교육이 가정으로 연계되는 가정-기관 간 연계의 토대가 되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유아의 혼란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김보현·이홍재·박미경, 2019; 윤보람·이영신, 2020; 이채진·이영신, 2021; 장희선·안영진, 2019)는 부모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상호인식 연구가 단순 비교 혹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척도는 객관적 역량이나 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자기기입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 차이의 비교에 머무른다면 자칫 특정 집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수준이 더 높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을 복합적으로 조망하여 갈등 발생 혹은 갈등 완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사가 상대의 인식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유사성인 주관적 일치도와 그 예상이 실제 당사자의 인식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는 정확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집단 구성원을 향한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원적 무지 혹은 상호인식 불일치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을 별도로 논의하였다. 유아교육에서 주체 간 인식의 차이는 집단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이유미·이정은, 2013),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상호 합의 혹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Park, 2003). 즉,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인식은 단순히 그 차이를 비교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실천적 대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한 부모와 교사 간 인식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내집단이나 외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박정열·허태균·최상진,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하여 유아의 부모와 교사 간의 집단 갈등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아의 부모와 교사 간 인식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으나(권미량·하연희, 2014; 김초롱·권미량, 2021; 서은정·마정미, 2021),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유아의 부모와 교사가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하여 서로 다르다고 인식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판적 이해는 실제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이 유사함에도 상대의 인식이 자신보다 낮을 것이라 인식하는 과소평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민성은 상대가 더 높게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과대평가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성·공공성은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사 인플루언서가 “학교 안팎의 눈치 보기(장민경·이승호, 2021, 182쪽)”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부모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속칭 ‘맘 카페’ 같은 단어는 유아 교사를 향한 마녀사냥의 장소로 표현되기도 한다(장근욱, 2021). 따라서 참여성·공공성 영역에 관한 결과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박정열 외, 2001)는 자주 대화하고 공동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거 역사성으로 인해 ‘우리’와 ‘남’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경계하고 구분 짓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던 권미량과 하연희(2014)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가 교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교사다운 부분이 있어야 맡길 수 있다”(289쪽)거나 “잘 가르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는 느낌”(288쪽)처럼 개인의 주관적 기준을 적용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사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 관하여 “정말 독특하시고 특이하시다”(292쪽)거나 “감시받고 잔소리 받는 느낌”(293쪽)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한다.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와 교사는 경쟁이나 서열보다 서로의 역할을 협의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합의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처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서로의 인식을 잘못 파악할 경우, 유아 미디어교육에서도 지각적 편향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사는 비판적 이해 혹은 시민성에 관한 서로의 인식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기표현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부모와 교사 모두 교사가 자기표현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연령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표본 가운데 교사 집단 연령 평균은 부모 집단 연령 평균보다 약 6세 낮았으며 교사 집단의 56%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표현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 차이는 각 집단의 연령 분포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유아 미디어교육에 관한 역할 설정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 즉,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 활동은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진행하되, 관련 사항을 부모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가정-기관 간 연계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미디어 경험을 교사에게 이야기하면, 교사는 해당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여 실제 가정에서의 경험과 맞닿은 미디어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김대희(2008)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는 미디어교육 방안으로 교사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미디어교육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미디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이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사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학생 혹은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관해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즉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를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역할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유아의 긍정적인 미디어 이용을 지원하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사 간 협력이나 가정-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 혹은 협업을 도모해볼 수도 있다.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할 때(Buckingham, 1998),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진행이나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자원 개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미디어교육 기관 중사자·대학이 각자 어떠한 역할을 맡고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논의한다면, 체계적인 유아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계점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을 파악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 표집을 실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들의 경향을 설명할 뿐 유아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의 모든 교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표본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자신들의 인식을 측정하였을 때 비판적 이해, 자기표현, 시민성 순서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관용성 측정 문항의 경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낮추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수도권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연구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 표집 과정에서 지역 할당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모·교사 집단의 지역별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부모·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측정은 부모·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나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실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은 비판적 이해, 자기표현, 시민성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나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비판적 이해 역량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없고, 참여성·공공성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후속 연구는 부모·교사의 객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지수를 파악한 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비교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지수 파악과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상호지향성 모델을 다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객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거나 제시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부모·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간의 관계성 파악과 상호지향성 모델 적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이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유아의 부모와 교사 간 상호인식 차이의 맥락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다원적 무지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와 내가 실제 유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다르게 파악한다면 비유사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논의되었다(Miller & McFarland, 1987). 또한, 다원적 무지는 소수의 구성원이 다수를 대표한다는 오해로 인해 발행하기도 한다(Park, 2003). 이러한 논의는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상호지향성 역시 다른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일부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이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

러시의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부모·교사의 인식 차이에 주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인식 차이의 원인을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지닌 맥락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 간 상호인식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주요 결과를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나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갈등유형이나 가정·기관 간 연계 적용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교사 인식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학습 과정에 필요한 역량은 복잡해지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Daniel, 2015). 또한, 청소년은 또래 친구라는 대인관계의 또 다른 축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와 학교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상호지향성 모델은 청소년기 자녀와의 인식을 비교하거나 또래 친구를 포함하는 등 다른 맥락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참여 인식에 관한 주요 결과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한 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비교해본다면, 학교급에 따른 부모·교사의 미디어교육 연계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 미디어 리터러시의 상호인식과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 및 분석하였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성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각각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유아 미디어교육은 부모 혹은 교사의 일방적인 참여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유아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실질적인 교육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유아 미디어교육의 여러 주체에 관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돌봄에 관한 논의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hn, J. (2013). A study on the age difference of digital media literacy.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7(1), 1-21.
- Ahn, J. I., Seo, Y.-K., & Kim, S. (2012). A study on the generation gap in media literacy awareness in social media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6), 129-176.
- Aufderheide, P., & Firestone, C. M.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Retrieved 2/5/22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365294.pdf>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ønn, P. S., & Brønn, C. (2003). A reflective stakeholder approach: Co-orientation as a basis for communication and lear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7(4), 291–303.
- Buckingham, D. (1998). Media education in the UK: Moving beyond protectionism.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33-43.
- Chaffee, S. H., & McLeod, J. M. (1968). Sensitization in panel design: A coorientational experiment. *Journalism Quarterly*, 45(4), 661–669.
- Chang, H., & Ahn, Y.-J. (2019). The effect on perception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class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edia literacy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583-604.
- Cho, M., & Kim, H. (2015). The effect of parental trust to child care centers and teachers' emotional temperaments on the Infant's adjustments to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77-103.
- Choi, C.-H., & You, Y. (2017). The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FA and CF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03-111.
- Choi, Y. H., & Chung, H. J. (2014). A home/school collaboration on character development through lending picture book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5), 229-248.
- Chung, W.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AAD conflict perceptions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Based on a time-series co-orientation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2(2), 337-377.

- Daniel, G. (2015). Patterns of parent invol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of family–school partnerships in the early years of school in Australia.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40(1), 119-128.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Hobbs, R.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Retrieved 2/5/22 from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0/11/Digital\\_and\\_Media\\_Literacy.pdf](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0/11/Digital_and_Media_Literacy.pdf)
- Jang, K. (2021, 5, 11). “Child abuse witch hunt at Mom Cafe... please protect childcare teachers” petitions to blue house. The Chosunilbo. Retrieved 2/8/11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1/E25EAJPAERB3ZMKMOTLLV3US4M/](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1/E25EAJPAERB3ZMKMOTLLV3US4M/)
- Jang, M. (2020). *Legal imperatives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 Focusing on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Retrieved 2/4/22 from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68/view.do>
- Jang, M. K., & Lee, S. (2021).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 influenc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9(3), 161-188.
- Kang, E. J. (2021). *Early childhood media use and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Retrieved 2/4/22 from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80>
- Kim, B.-H., Lee, H.-J., & Park, M.-K. (2019). The classification and influence factors of digital liter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2), 157-181.
- Kim, C., & Kweon, M. (2021). A study on the types of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 1359-1383.
- Kim, D. H. (2008). A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in partnership of schools and families for improving media literacy. *Korean Education*, 79, 25-53.
- Kim, J., & Kim, S. Y. (2020). A Study on the perceptual difference of government-public relationship by government officials, young citizens, and senior citizens application of the co-orientation model.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4(4), 1-36.
- Kim, J., & Lee, K.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s’ media literacy, smart-media mediation, preschoolers’ smart-media usage time,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6), 63-76.
- Kim, Y., & Yoon, H. (2004). Interpersonal connections and business ethics :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of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and journalists toward public relations business ethic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8(1), 302-338.

- Kweon, M.-R., & Ha, Y.-H.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4), 281-302.
- Lee, C. J., & Lee, Y. (2021). The effects of parents' media literacy on children's smart media immersion tendency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mart media mediation.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and Research*, 6(2), 169-193.
- Lee, J. I., & Chung, W. (2020). A comparative study of robot journalism between journalists and readers : Based on a co-orientation model.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8(2), 113-155.
- Lee, J.-U., & Kang, E. J. (2020). An analysis on possibility of utilizing educational social networking applications in early childhood remote education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6), 347-369.
- Lee, S. (2020). Kindergarteners' multimodal literacies in the activities of re-designing advertisem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2), 1-20.
- Lee, S., & Sohn, Y. (2018). Coorientational analysis among media literacy practitioners-literacy experienced persons - literacy nonexperienced person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5(2), 213-257.
- Lee, S.-S., & Chon, B. S. (202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lderly-young generation perception on YouTube use motives: An application of the co-orient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4(2), 76-104.
- Lee, Y. & Lee, J.-E.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Grandparents' Generation. *Asian Culture Studies*, 29, 267-299.
- Livingstone, S. (2004). Media literacy and the challeng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Communication Review*, 7(1), 3-14.
- McLeod, J. M., & Chaffee, S. H. (1973). Interperson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4), 469-499.
- Miller, D. T., & McFarland, C. (1987). Pluralistic ignorance: When similarity is interpreted as dissimi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298-305.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2020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Retrieved 2/11/22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1623&bcIdx=23112&parentSeq=23112](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1623&bcIdx=23112&parentSeq=23112)

-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3435.
- Park, C.-Y., Hur, T., & Choi, S. C. (2001). Psychological sub-categorization of 'in-group': Weness versus im-the-same-grou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1(1), 25-44.
- Park, S.-H. & Park, S.-M. (2005). A study on the co-orientation of internet portal news providers and us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0, 143-174.
- Park, J. (2003). Discrepancy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e practitioners regarding professional standards in public relations: A co-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5(3), 249-275.
- Park, J. (2012). Co-orientation and false consensus versus false conflict of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and journalists in the source-reporter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4(3), 92-123.
- Rosen, D. B., & Jaruszewicz, C. (2009). Developmentally appropriate technology use and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30(2), 162-171.
- Seo, E., & Ma, J. M. (2021). Infants' use of video content and caregivers' media literacy.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20(3), 123-160.
- UNESCO (1977). *Media studies in education*. Retrieved 2/4/22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23803>
- UNESCO (1984). *Media education*. Retrieved 2/4/22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62522>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ckman, D. B. (197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coorient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4), 537-550.
- Yoo, S., & Kim, K. S. (2020). Practicing engaged journalism through crowdfunding : A comparison between creators and contributors.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8(2), 157-200.
- Yoon, B., & Lee, Y. (2020). The effect of mother's media literacy o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 The mediated effect of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0(6), 105-130.
- Yun, M. & Suh, H. (2021). Young children's narrative about smart media.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1(3), 269-291.

최초 투고일 2022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5월 12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6월 01일



## 부록

- 강은진 (2021). 아동권리측면에서 바라본 유아 미디어 이용과 교육. Retrieved 2/4/22 from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8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Retrieved 2/11/22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1623&bcIdx=23112&parentSeq=23112](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1623&bcIdx=23112&parentSeq=23112)
- 권미량·하연희 (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권 4호, 281-302.
- 김대회 (2008).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79권, 25-53.
- 김보현·이홍재·박미경 (2019).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잠재계층 유형화 및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12호, 157-181.
- 김영옥·윤하나 (2004). PR 실무자와 언론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PR 직업 윤리에 대한 상호 인식. <홍보학연구>, 8권 1호, 302-338.
- 김지선·이강이 (2019).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0권 6호, 63-76.
- 김지윤·김수연 (2020). 정부-공중 관계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 청년, 시니어 간 인식 차이 비교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 <홍보학연구>, 24(4), 1-36.
- 김초롱·권미량 (2021). 부모와 교사 간 갈등유형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호, 1359-1383.
- 박성희·박수미 (2005). 포털뉴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지향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 30호, 143-174.
- 박정열·허태균·최상진 (2001).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권 1호, 25-44.
- 박종민 (2012). 기사 생성 과정에 있어 언론기자들과 취재원으로서 PR실무자들 간의 상호이해 상호지향성 모델과 그릇된 합-비합의 개념의 적용. <한국광고홍보학보>, 14(3), 92-123.
- 서은정·마정미 (2021). 유아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과 양육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소통학보>, 20권 3호, 123-160.
- 안정임 (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권 1호,

1-21.

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 검증: 세대 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6호, 129-176.

유수정·김균수 (2020).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수용자 관여 저널리즘(Engaged Journalism) 실천 : 제안자와 후원자의 상호지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8권 2호, 157-200.

윤미경·서현선 (202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유아들의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41권 3호, 269-291.

윤보람·이영신 (2020).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0권 6호, 105-130.

이상숙·전범수 (2020). 유튜브 이용 동기에 대한 세대 간 상호인식 차이 :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 비교. <한국방송학보>, 34권 2호, 76-104.

이수범·손영곤 (2018).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기획자, 경험자, 비경험자간 인식 차이: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2호, 213-257.

이수원 (2020). 광고 채디자인 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의 복합양식 리터러시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5권 2호, 1-20.

이유미·이정은 (2013). 전통육아방식에 대한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간 인식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267-299.

이정일·정원준 (2020).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와 독자 간 상호 인식 연구: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8권 2호, 113-155.

이지운·강은진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용 SNS 앱의 유아 원격교육 활용 가능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권 6호, 347-369.

이채진·이영신 (202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 효과. <인성교육연구>, 6권 2호, 169-193.

장근욱 (2021, 5, 11). “맘카페서 아동학대 마녀사냥... 보육교사 지켜달라” 靑 청원. <조선일보>. Retrieved 2/8/11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1/E25EAJPAERB3ZMKMOTLLV3US4M/](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11/E25EAJPAERB3ZMKMOTLLV3US4M/)

장민경·이승호 (2021). 교사 인플루언서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권 3호, 161-188.

장민영 (202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Retrieved 2/4/22 from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68/view.do>

장희선·안영진 (2019). 예비유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효능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학습 인

- 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18호, 583-604.
- 정원준 (2020). 사드 (THAAD) 이슈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공중 간 갈등 인식 변화 추이 연구: 시계열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광고홍보학보>, 22권 2호, 337-377.
- 조미현·김현수 (2015). 부모의 보육시설 신뢰와 교사의 정서적 기질이 영유아의 보육시설 적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1호, 77-103.
- 최영혜·정희정 (2014). 인성덕목 관련 가정연계 그림책 대어 활동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4권 5호, 229-248.
- 최창호·유연우 (2017).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권 10호, 103-111.

## 유아의 부모와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서로 어떻게 인식할까?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 인식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

이혜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이재은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정선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유아 미디어교육의 주요 주체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 교사에 주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와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 구성 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분석하고, 각 모델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유아 미디어교육에서 부모·교사 간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수도권 지역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 총 203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소인 비판적 이해에 관한 부모·교사의 객관적 일치도가 일치하였으나, 주관적 일치도는 두 집단 모두 일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자신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시민성에 관해서도 부모·교사의 객관적 일치도가 일치하고 주관적 일치도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즉, 비판적 이해와 시민성에 관하여 부모·교사 스스로의 인식이 유사함에도 상대방은 자신과 다를 것이라 오해하는 지각적 편향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자아표현에 관하여, 부모·교사 모두 유아교육 기관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 답변하였고 두 집단 모두 이러한 인식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한 상호지향성 모델 유형 분석 결과 부분 불일치 유형에 해당하였다. 즉,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 종사자나 대학의 유아 미디어교육 참여에 관하여 부모보다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나, 부모는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식이 자신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유아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상호지향성 모델, 부모, 교사